

2016 새 설계

민 형 배 광산구청장

‘신재생 에너지’로 생태도시 환경 다질 것

2018년 ‘스마트 그리드’ 완료

송정2·도산동 도심 재생 추진

신용 회복 등 금융복지 강화

“올해 광산구청의 목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도시환경의 관계 등을 적절하게 안배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12일 “민선 5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면, 민선 6기에는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새해 이 같은 목표의 대표적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꼽았다. 국비와 민간자본 등 총 2297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지난해 유치한 것은 환경친화적이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8만9000여 세대에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2만5000여 세대에 공급하는 설비를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실시간



으로 전력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홈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전기요금이싼 시간대에 전기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충전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같이 생태·환경·신재생과 같은 물리적 조건에서 사람에게 더

욱 이로운 도시 여건을 확보하고, 마을·교육·복지와 같은 인문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치 역량의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신념을 내비쳤다. 특히, 국비와 시비 등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송정2동과 도산동 일대의 낙후된 구도심 재생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 청장은 “선운도서관, 우산동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센터 등도 조속히 개관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따라가는 옛 방식보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자치’가 온전히 작동했을 때 자치역량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주민 의사결정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지원 강화에 나서는 방침이다. 주민 의사결정체 활성화의 목표는 주민권자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민 청장은 강조했다.

광산구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인 참여단과 같은 여러 형태의 수단이 있지만 지역과 구정 전체를 아우르는 거

시적 수준에서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러 형태의 참여 통로를 하나로 묶어 세운다면 각 단위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구정 전반에 주민 의견을 반영,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민 청장의 판단이다.

민 청장은 또 “올 상반기 중 ‘금융복지센터’(가칭)를 설립해 채무 및 재무관리 교육, 신용회복 알선·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10년 이상된 악성채무를 탕감하는 ‘롤링 주빌리 in 광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눈길을 끌었다.

올해 광산구청의 슬로건은 ‘공감과 신뢰에 기초한 공공성의 확장’이다. 민 청장은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배로 불리는 것이 공감의 힘이고, 불필요한 문턱과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사회적 힘이 신뢰”라며 “주민과 공직자 등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공감과 신뢰의 관계가 두터울수록 공공성 확장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슬로건에 대해 설명했다.

민 청장은 “주어진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산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도로명주소 쓰세요
광주시 토지정보과 직원들과 광산구 직원 등 20여 명은 최근 송정5일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나눠주며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시 제공>

중국 학생들 ‘광주 뷰티’ 배우러 왔다

올 4회째 운영 ‘뷰티아카데미’

중국 요동, 절강, 안휘성 지역의 학생들이 광주의 뷰티를 배우러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올해 4회째 운영하고 있는 ‘중국 학생 대상 뷰티아카데미’ 참가생들로, 1차(지난 9월~12월) 요동·하씨 의과대학 학생 등 29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청도직업기술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등 30명이 2차로 방문할 예정이다.

뷰티아카데미는 시가 지역의 우수한 뷰티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 관광을 통해 뷰티도시로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뷰티교육 국제화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

치를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교육은 광주여자대학교가 맡고 있다.

이번 뷰티아카데미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분야의 지역 우수 강사진을 배치해 최신 흐름을 반영한 기술을 선보이고, 뷰티업소 체험, 복구 용봉동에 위치한 미용박물관 등 관광을 통해 광주의 뷰티 문화와 관광자원을 보여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뷰티아카데미는 광주의 뷰티산업 관련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중국 등 해외에 알리는 기회”라며 “광주의 이미지는 물론, 뷰티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피소 찾기·방독면 착용법 등

비상사태 행동요령 홍보 나서

광주시, 위기대응반 편성·주요 시설 점검

광주시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시민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 행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대응반을 편성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상황 관리 강화 등 긴급 보고체계를 확립했다. 또 시 청사 등 중요 시설물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 기반 및 중요 시설물의 방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민방위 동원 연락체계를 주민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비상 시 대피소 찾기와 방독면 착용 요령, 사태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사진)을 시와 자치구 민원실·안전체험관·민원 안내실 등에 비치해 활용도 높이고,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자금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3억원씩 지원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3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가처 일시상환이다. 시에서는 2.0~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준다.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기존 광주시 경영안정자금 포함 한도액(3억원) 초과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해 융자신청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자금 사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13일부터 하남공단에 위치한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소방 ‘화재피해지원센터’서 구호품 지원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아파트 등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복구와 생활필수품지원 등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화재피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보합 처리, 관공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화재증명원 발급,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불에 탄 화폐처리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구호물품으로 쌀 등 생필품 9종을 지원한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피해 주택 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장판 교체, 안전점

검도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 동구 산수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와 5일 북구 문흥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에 이재민 구호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환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민·관 협력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주택 화재 333건 중 저소득층 주택에서 발생한 31건에 대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소외계층 1851세대에 대해 주택화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